

# 소비 너머의 공간: 『불편한 편의점』의 문학지리학

TRAN TUNG NGOC (陳松玉)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지리학전공 박사 3기

## I. 서론

### 1. 연구 목적

초현대사회에서 도시화의 가속화와 소비주의의 확대는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상적 공간에 대한 탐구는 인문지리학과 현대 문학연구의 핵심 연구 축으로 부상하였다. 마르크 오제(Marc Augé)의 ‘비장소’ 개념은 공항 · 대형마트 · 고속도로 · 편의점처럼 관계와 기억이 최소화된 소비 중심의 익명 공간을 설명하지만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2021)은 이러한 비장소적 공간이 문학적 재해석을 통해 감정 · 기억 · 관계가 축적되는 ‘장소’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을 거치며 소속감의 결핍과 치유 욕구가 심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은 대중의 폭넓은 공감과 사회적 과급력을 얻었고 ‘마이크로 서울’을 배경으로 도시적 고립감 · 정서적 지지 · 공동체성의 회복 같은 문제들을 공간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청과동의 오래된 골목과 작은 편의점은 다양한 인물이 만나 기억과 관계를 생성하는 공간적 결절점으로 기능하며, 비장소와 장소의 경계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이 작품의 공간적 · 문학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사의 핵심 구조와 공간 묘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역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 즉 은퇴 교사 염영숙과 노숙인 독고의 조우를 중심축으로 청과동 골목에 자리한 편의점 ALWAYS를 통해 관계 형성과 장소성의 회복을 그려낸다. 독고가 지갑을 지켜 돌려주는 장면은 비장소에서 시작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공간의 성격은 급격히 변한다. 처음에는 소비 중심의 익명 공간이었던 편의점이 독고의 서툰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청소, 손님 응대, 인사, 대화)을 통해 머물고 관계를 맺는 장소로 재구성된다. 작품은 취업준비생 · 이혼한 아버지 · 야간 노동자 · 노년층 노동자 등 다양한 도시 구성원의 삶을 편의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수렴시키며, 이들이 서로의 삶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에피소드형 서사’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편의점이라는 비장소적 공간에 정서 · 기억 · 관계라는 장소적 요소가 점층적으로 쌓여가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가시화한다. 또한 이 소설은 실제 서울의 지명과 공간 리듬을 정교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서울역-갈월동-청파동으로 이어지는 공간축은 인물의 이동·서사적 충돌·도시적 계층 구조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리적 기반이며, 특히 청파동 골목의 낡은 주택가와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도시의 미시적 풍경과 정서적 층위를 함께 드러내는 핵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현실 지리 기반은 텍스트의 설득력을 높일 뿐 아니라 문학지리학적 분석과 디지털 문학지도 구축(예: Google MyMap)에 적합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연구 대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편한 편의점』은 출간 후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로, 팬데믹 시기 도시인의 고립감·정서적 피로·치유 욕구를 정확히 포착하며 동시대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대중적 성공은 곧 텍스트가 사회적 현실과 긴밀히 호응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둘째, 작품의 중심 무대가 한국 도시에서 가장 전형적인 비장소 ‘편의점’이라는 점은 인문지리학적 탐구에 탁월한 조건을 마련한다. 편의점이 소비의 장치에서 관계적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은 오제의 비장소 이론을 비판적·창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례다. 셋째, 서사 곳곳에 배치된 실제 지명, 이동 동선, 거리 감각은 문학공간 분석, 도시리듬 연구, 현장조사 및 디지털 지도 제작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여 연구의 실증성을 높여 준다.

결국 본 연구는 『불편한 편의점』이 비장소를 어떻게 재인간화하고 초현대사회의 소비 공간 속에서 새로운 장소성을 구성하는지를 문학지리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 지명 연구, 공간 실천 분석, 디지털 문학지도 제작 등을 결합하여 문학이 도시 공간을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정미숙(2021)은 문화지리학의 관점을 도입하여 편의점이 등장하는 소설을 도시의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읽는 분석 방법을 취한다. 연구자는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의 ‘장소’ 이론, 마르크 오제(Marc Augé)의 ‘비장소’ 개념, 그리고 장소가 다양한 ‘흔적’의 지속적 축적과 구성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는 인간지리학적 시각을 이론적 틀로 삼아,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익명적 소비 장소를 넘어 인간의 기억, 이동, 행위, 관계가 중첩되는 장소로 변모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러한 문화지리학적 분석을 통해 논문은 편의점 소설이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서, 소비주의와 도시 불안정성이 심화된 시대의 도시적 생존 조건·계층성·프레카리아트적 삶을 드러내는 장치임을 밝힌다. 다시 말해, 비장소적 공간으로 여겨지던 편의점이 어떻게 개인의 경험과 감정, 불안, 생존 전략이 기록된 ‘의미화된 장소’로 재구성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방법론이다.

이행선(2023)은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 편의점 산업의 경쟁 심화·비정규 노동·감정노동·야간 폭력 등 동시대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작품을 해석하는 핵심 이론들로 레비나스(Levinas)의 타자 윤리학, 즉 ‘타자의 얼굴’과 ‘말 걸기의 윤리적 명령’을 적용하여 소설에서 나타나는 관계 회복의 의미를 규명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연구자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소비 장소가 아니라 최소한의 접촉이 발생하는 소통의 공간, 그리고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소통불능의 인물들이 다시금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윤리적 장(場)으로 기능함을 밝힌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불편한 편의점이 레비나스적 의미에서 “타자와 마주하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성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임을 강조한다.

김미영(2023)은 2010년대 후반을 ‘서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웹소설·웹툰의 급부상과 팬데믹이라는 동시대 사회·문화적 환경을 문학적 맥락과 결합하여 분석하는 맥락적·서사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불편한 편의점』의 대중성이 작품 내부의 서사 요소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변화한 매체 환경(웹소설/웹툰의 영향력)과 팬데믹 이후 독자 중심적 글쓰기 태도라는 외부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전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품을 텍스트 내부 분석에만 국한하지 않고 2010년대 후반 이후의 독서 문화, 플랫폼 기반 서사 구조, 베스트셀러 형성 조건 등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서사 비평을 적용하여 김호연의 글쓰기 방식이 어떻게 독자성·대중성·시대적 요구에 반응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이명희(2025)는 한·일 양국에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드러내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과 사회문화적 접근을 결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현대 사회의 소비 도시 구조, 비장소 그리고 불안정 노동계층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구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장(場)임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편의점 공간이 서사 전개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하고 (2) 두 나라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결핍·소외·탈락의 인물들)을 비교하며, (3) 이러한 인물 재현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한일 사회의 차이를 해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 소설은 소외된 타자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위로를 얻는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 소설은 매뉴얼 사회 속 개인의 고립과 내면적 균열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이를 통해 양국 문학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특징이 뚜렷하게 대비됨을 드러낸다.

기존 연구들은 편의점 소설을 문화지리학, 윤리학, 서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왔으나 편의점 공간이 텍스트 내부에서 어떻게 지리적으로 생산·구성되는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문학지리학·지리비평·비재현 이론을 종합하여 편의점이 ‘비장소’에서

‘장소’로 전환되는 공간 형성 과정을 다층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나아가 디지털 문학지도화와 현지 조사를 결합하여, 서사 속 서울과 실제 도시 공간을 비교하는 실증적 공간 분석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문학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지리화하고 의미화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편의점 소설을 도시 공간의 구조와 리듬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이론적 배경

#### (1) 문학지리학적 비평

문학지리학은 공간, 지명, 기억, 인물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며, 문학이 단순히 세계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공간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 지도를 창조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은 다양한 장소를 호명하고 묘사하고 서로 연결함으로써 도시 경험, 이동 행위, 그리고 인간과 장소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시하는 하나의 문화적 ‘지도 제작(map-making)’ 행위로 간주된다. 문학지리학적 비평은 텍스트를 공간을 구성하는 담론으로 접근하여, 텍스트가 공간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상징화하며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사 속에서 어떻게 ‘라벨링’되고 구획화되며, 감각적으로 재인식되고 재정의되는지를 해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학이 물리적 공간과 경험적 공간, 현실의 도시와 텍스트 속 도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재구축하는지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 (2) 마르크 오제(Marc Augé)의 ‘비장소(non-place)’ 이론

마르크 오제가 제시한 ‘비장소’ 개념은 공항, 고속도로 편의점과 같이 초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공간들을 의미하며, 이곳에서는 빠른 소비와 이동만이 반복되고 고유성, 역사성, 사회적 관계 형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이러한 비장소적 성격이 전복된다. 원래 익명적이고 관계가 부재한 공간이던 편의점이 인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만들어 내며 개인적 기억이 축적되는 장소로 재탄생하기 때문이다. 즉, 문학은 소비 공간을 ‘재인간화’함으로써 오제의 비장소 모델을 넘어서는 풍부한 장소성을 작품 속 편의점에 부여한다.

#### (3) 비재현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

비재현 이론은 전통적 기호학 모델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경험, 감정, 신체 움직임, 일상의 실천 등 비가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요소에 주목한다. 이 관점을 『불편한 편의점』에 적용하면 등장인물들이 노동의 리듬, 공간의 소리와 냄새, 조명, 그리고 사소한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공간이

단순한 서술적 묘사를 넘어 인간의 감각과 정동 그리고 존재론적 체험을 통해 의미화된다는 점이 밝혀진다.

#### 4. 연구 방법

##### (1) 문학지리의 비평적 접근

지리비평적 방법은 편의점과 관련 공간을 묘사한 문장을 정밀하게 ‘꼼꼼하게 읽기’(close reading)함으로써 해당 공간이 낯센에서 따뜻함, 친숙함을 거쳐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장소로 전환되는 의미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간 모티프의 배열, 인물의 공간 인식 변화, 텍스트가 장소를 조직하는 방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방법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서사 전체에서 가지는 상징적 가치와 기능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 전개에 동력이자 인물의 생활 세계를 형성하는 문학적 행위자임을 밝힐 수 있다.

##### (2) 문학지도화(Digital Mapping)

문학지도화 방법은 Google MyMap 을 활용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을 확인하고 체계화한 후 지명, 공간 유형, 관련 텍스트 인용, 기호학적 기능 또는 답사 사진 등을 포함한 디지털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문학 공간의 시각화 작업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사를 통해 어떻게 재구조화되는지를 드러내며, 더 나아가 허구 세계와 실제 도시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소설 속 서울 지도’를 구축한다. 이는 지명, 문화적 의미, 공간 정체성 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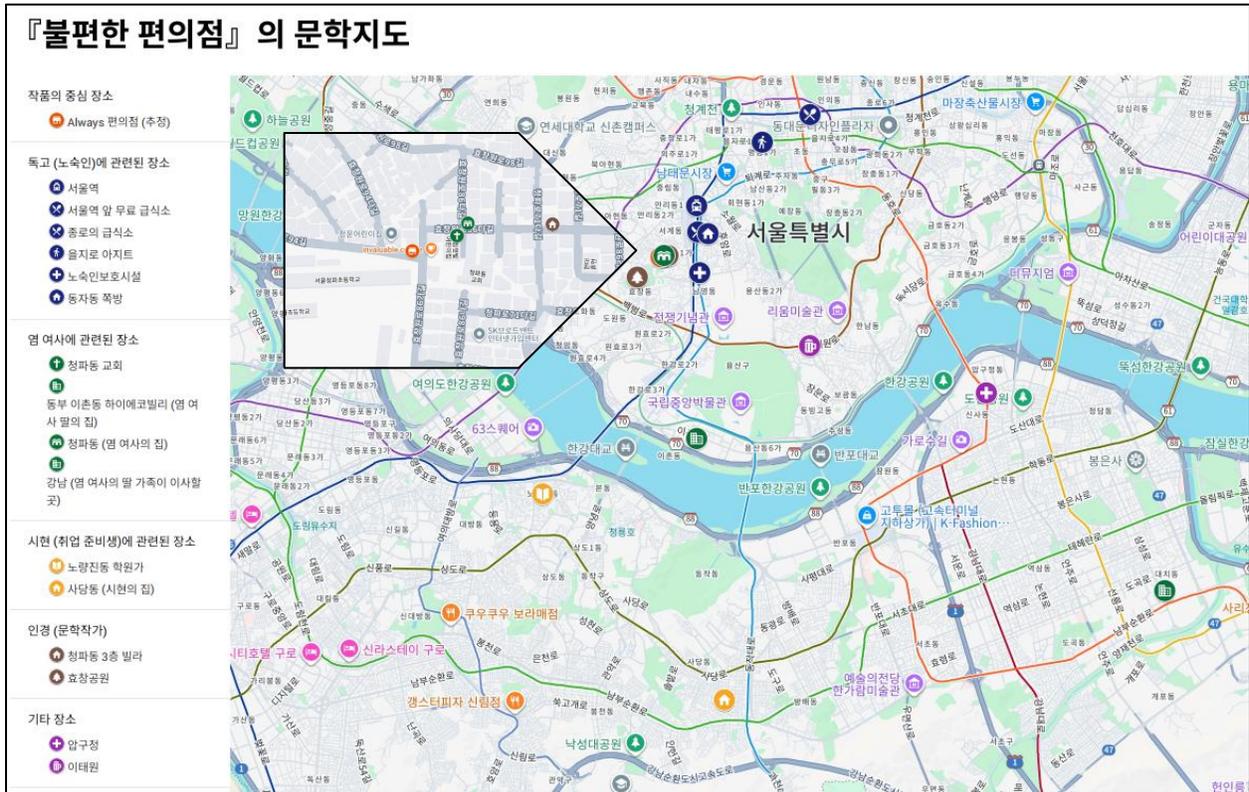


그림 1. 『불편한 편의점』의 문학지도<sup>1</sup>

### (3) 현지 조사 방법

현지 조사는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 즉 편의점이 위치한 청파동 일대, 거리, 서울역, 효창공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해당 장소에서 관찰을 통해 도시의 리듬, 공간의 물리적 구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사진·영상·음향 등 다양한 자료를 기록하여 텍스트 분석을 보완한다. 이를 토대로 ‘현실의 서울’과 ‘소설 속 서울’을 비교함으로써 두 공간이 경험적 차원에서 어디에서 만나는지,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파악하고 문학이 현실 공간을 어떻게 미학적·인문적 공간으로 전환하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다.

<sup>1</sup> 참조: <https://www.google.com/maps/d/u/0/edit?mid=1GwYLMYHSlpKfXSA5G9DdhW4UUXm--E&usp=sharing>

## II. 본론

### 1. 비장소에서 장소로: 편의점 공간의 전환 과정 분석

#### 1.1. 텍스트 속 편의점의 초기 공간성: 익명성·소비성·일시성

마크 오제(Mark Augé)의 비장소(non-place) 개념은 초현대성 인류학의 중요한 이론적 성과로 공동의 정체성·집단적 기억·유기적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공간을 지칭한다. 오제(1997)는 비장소를 두 가지 상보적이지만 구별되는 실체 즉 (1) 이동·환승·상업·여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2) 개인이 그 공간들과 맺는 관계로 정의한다. 역사·기억·언어적 공모를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류학적 장소’와 달리 비장소는 오직 일시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고독한 계약성”만을 생산한다. 더 나아가 비장소는 안내문·표지판·규범적 문구 등 ‘사용 지침’을 이뤄내는 텍스트적 요소들이 고밀도로 축적된 공간으로서 이러한 텍스트들이 공간 경험 전반을 규정한다 (Augé, 1997, 94~95 쪽).

비장소의 또 다른 핵심적 특징은 기술·행정적 방식의 개인 식별 절차이다. 공항·고속도로·대형마트 등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항공권·신분증·카드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해 인식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비장소의 이용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익명성을 획득한다(Augé, 1997, 101 쪽). 비장소는 어떤 ‘유기적 사회’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제는 “비장소는 유토피아의 반대편에 있다. 그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어떠한 유기적 사회도 담고 있지 않다”고 명시한다(Augé, 1997, 111 쪽). 초현대성의 과잉 이동성·소비·감시 체계를 전면화하며, 비장소는 단순한 공간 유형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 정체성의 분절, 그리고 기능주의적 합리성의 확대를 상징하는 초현대적 공간 미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다.

비장소의 관점에서 볼 때 편의점은 초현대적 일상 속에서 가장 전형적인 공간 중 하나로 이동성·소비·기능성이 최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장소이다. 공항이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편의점은 이용자가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이나 지역적 역사성을 지니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표준화된 절차, 균질화된 브랜드,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 사이의 일종의 ‘묵시적 계약 관계’를 통해 운용된다. 편의점에서 진열 동선·안내 표지·자동 결제 시스템·카드 사용 등은 모두 텍스트 기반의 규율 장치로 기능하며 고객 경험을 구조화한다. 또한 편의점에서의 체류는 대체로 일시적이고 단절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오제가 말한 “고독한 계약성”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빠르고 비개인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된 편의점은 기억·공동체성·장소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 비장소로서 이용자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데이터라는 방식으로 재식별되는 초현대적 공간의 이중성을 구현한다.

『불편한 편의점』의 주요 배경인 편의점 ALWAYS는 특히 고객을 포함한 인물들의 초기 인상 속에서 오제(1997)가 말한 의미 그대로의 비장소로 먼저 제시된다. 이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이며, 인간-인간 관계가 인간-상품 관계로 대체되고 도시 생활의 익명성과 소비성 그리고 덧없음이 극대화되는 장소이다. 여러 인물들의 초반 인상은 ALWAYS가 무엇보다 사회적 장소라기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익명성은 고객들이 직원을 ‘하나의 서비스 기능’으로 바라보는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 2장에서 진상 손님 ‘제이에스’는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호통치며 이렇게 말한다. “단골 대하는 게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어?” (제 2 장) 여기서 직원은 개별적인 인격이나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단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기능적 장치’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제 6장에서 민식은 독고를 처음 바라보며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하긴, 이런 알바가 있으면 밤에 도둑들 걱정은 없겠군.” (제 6 장)이 발언은 비장소의 비인칭적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직원은 함께 상호작용하는 인간이 아니라 도둑을 막기 위한 도구’로 축소되며 관계적 의미는 제거된다.

둘째, 고객들은 편의점에 들어설 때 소비성을 전제로 한 태도로 공간을 인식하는데, 이는 모든 비장소의 근간을 이루는 특징이다. 초기 인상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제 5장에서 인경은 편의점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실망감을 드러낸다. “좋아하는 과자는 하나도 없었고… 도시락도 부실했다.” (제 5 장) 그녀의 감각은 공간 경험 자체에 향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품 목록’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식은 냉장고 안을 가득 채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맥주를 보자마자 편의점을 질 낮은 공간으로 판단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맥주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 6 장). 제 3 장의 할머니 손님들 또한 이 공간을 ‘가격이 싸다’, ‘행사 상품이 있다’는 순전히 소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 마트보다 싸겠네.” (제 3 장) 이러한 일련의 인상들은 소비의 논리가 공간 인식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들에게 ALWAYS는 무엇보다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먼저 장바구니뿐일 비장소로서 존재한다.

셋째, 편의점은 기억이나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잠시 머무는 공간’, 즉 비장소로 인식된다. 비장소의 전형적 이미지 중 하나는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장면인데, 제 4 장의 경만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퇴근길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찬 바람 맞아가며 들이켜는 소주 한 병.” (제 4 장) 이는 사회적 행위라기보다 고독한 의례로, 편의점 공간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이 공간’임을 강화한다. 제 5장에서 인경은 편의점이 주는 낯설고도 압박적인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인정한다. “불편하지만 새벽에 갈 데가 없으니 이용할 수밖에.” (제 5 장) 편의점은 선택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공간으로 제시되며, 이는 비장소의 핵심적 징표이다. 또한 제 3 장의 소년 도둑에게 편의점은 심지어 ‘훔치기 좋은 곳’으로 기능한다. “똥똥하고 둔해 보이는 아줌마가 있을 때는 훔치기 쉽다.” (제 3 장) 이러한 인식은 편의점이 주체적 관계나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무주인성·무명성·비사회성이 강화된 공간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직원들의 측면에서도 초기 인상은 편의점이 비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필은 편의점을 단지 ‘야간 근무를 서는 공간’으로만 받아들이며 어떠한 애착도 느끼지 못한다. 시현 역시 편의점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긴다. 제 3 장에서 오선숙은 손님에게 김밥을 얼굴에 맞는 사건을 겪으며 이곳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이라고 체감한다. 심지어 독고 또한 초기에는 이 공간을 그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만 대한다. 그는 사장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를 뿐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느끼거나 소속감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들은 직원들 또한 편의점을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소모되는 공간, 즉 비장소로 경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이러한 초기 인상들을 통해 비장소의 구조가 온전히 재현된다. 먼저 익명성은 고객과 직원이 서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관계로 드러나며, 소비성은 모든 평가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비장소성은 공간이 잠시 이용되는 곳, 기억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ALWAYS 는 오제가 묘사한 비장소의 속성 그대로, 사람을 담아내지만 인간관계를 생성하지 않는 공간, 즉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용하고 곧 사라지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장소적 기반 위에서 소설이 점차적으로 비장소에서 인간의 장소로의 변화를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익명성, 소비성, 일시성이 지배했지만 이후에는 기억, 감정, 관계가 형성되며 공간이 점차 사람의 장소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부분 인물들의 첫 인상에서는 ALWAYS 가 익명성 · 소비성 · 일시성이라는 한국 현대 도시 생활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전형적 비장소로 나타난다.

## 1.2. 인물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장소성의 축적

### 1.2.1. 편의점의 종사자들

편의점 ALWAYS 의 장소성은 건물 구조나 상업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일상적 실천이 중첩되며 축적된 결과로 형성된다. 편의점에 대한 첫인상만 해도 항상 비장소적 특성 즉 익명성 · 소비성 · 일시성이 지배적이었으나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이 공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편의점은 점차 인간적 의미와

정동이 부여된 장소로 변모한다. 장소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감정, 그리고 윤리적 관계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ALWAYS의 변화 과정은 장소성의 누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소 형성의 핵심축은 염영숙 여사이다. 정년퇴직한 교사이자 청파동의 오랜 주민인 그녀에게 편의점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이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를 “직원들이 삶을 꾸려나가는 장소”로 인식하며, “내가 편의점 접으면 오 여사랑 독고 씨는 일을 잃는 거야.”라고 말한다(제 6 장). 이는 공간에 대한 그녀의 윤리적 이해를 명확히 드러낸다. 특히 그녀가 독고에게 지갑을 돌려받은 뒤 보여준 신뢰와 돌봄은 편의점 소비 공간이 아닌 공동체적 돌봄이 실천되는 장소로 끌어올린다. 염 여사의 반복적이고 꾸준한 돌봄의 실천은 ALWAYS에 관계적 온기를 부여하며 장소성의 기초를 다진다.

오 여사는 20년지기 친구이자 같은 교회 성도로, 편의점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지닌 인물이다.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편의점의 오전 근무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한다. 그녀는 “여기 일 없으면 나도 당장 막막해.”(제 3 장)라고 말하며 편의점이 자신의 생계를 지탱하는 기반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난 언니 믿고 하는 거지, 이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았잖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그녀의 존재는 편의점에 지역 공동체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역적 유대감과 노동의 일상성은 공간을 안정시키고 장소가 갖는 정서적 일관성을 공고히 한다.

시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으로, 사회 경험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으로 학원비를 충당하며 “저는 여기서 번 돈으로 학원도 다녀요.”라고 말한다(제 2 장). 이는 편의점이 그녀에게 단순한 단기 알바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임을 보여준다. 염 여사는 시현을 “딸 같고 조카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제 2 장), 시현이 공간 안에서 차지하는 정서적 위치를 확고히 한다. 시현의 실천은 장소에 희망의 정동을 부여하며, 세대 간 신뢰와 돌봄의 회로를 작동시킨다.

야간 근무의 중심을 담당했던 성필 씨는 장소성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0대 중반의 가장으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는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맡아 1년 반 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지킨다. “애들 때문에라도 이 일은 성실히 해야죠.”(제 4 장)라는 말에서 그의 책임감을 볼 수 있다. 또한 염 여사의 “성필 씨 아니었으면 이 가게 벌써 문 닫았지.”라는 평가(제 4 장)는 그의 노동이 공간에 얼마나 큰 안정성을 부여했는지 잘 드러낸다. 성필의 존재는 편의점을 신뢰와 책임이 응축된 장소로 만드는 데 기여하며, 장소성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다.

마지막으로, 광 씨는 장소성의 변화가 단순히 긍정적 인물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다. 그는 처음에는 독고를 내쫓으려는 점주의 아들 민식의 의도에 따라 고용된 인물이지만 실제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면서 독고와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염 여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독고 형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제 7 장)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이후 “사장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괜히 오해했지.”(제 8 장)라고 말하며 공간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형성한다. 광 씨의 변화는 편의점이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장소임을 잘 보여준다.

표 1. ALWAYS 편의점의 종사자

인물	사회적 특징	연령	근무 교대	편의점과의 인연·의미
염영숙 여사 (점주)	정년퇴직 교사, 기독교 신자, 청과동 거주, 가정 문제 (아들)로 마음고생 많음	70 대	상시 관리 필요 시 야간까지 직접 지킴	남편 유산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체.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생계와 삶을 책임지는 공간. 또한 독고를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
오 여사 (직원)	같은 교회 성도, 20 년 지기 친구, 동네 주민, 생계가 편의점에 달려있음	50~60 대	오전 근무	염 여사와의 오래된 친분. 편의점은 그녀의 생계 기반이자 안정된 일자리
시현 (알바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마음 약하고 착함, 아직 사회 경험 부족, 대학생은 아님	20 대	오후·저녁 근무	1 년 이상 근속한 믿을 만한 알바. 염 여사가 ‘딸 같고 조카 같은 존재’라고 여김.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공부 유지
성필 씨 (직원)	2 남매의 아버지, 재취업 어려운 중년 가장, 반지하 거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함	50 대 중반	야간 근무 (편의점 오픈 초기부터 약 1 년 반 담당)	가장 안정적인 야간 근무자였고 ‘일등 공신’. 편의점으로 가정 생계를 유지하다 운전기사 일자리로 재취업하며 퇴사
독고 (직원)	주인공, 서울역 노숙인, 염 여사의 지갑을 되찾아준 인물, 언어·기억 혼란, 책임감 ·정직함이 있음	40 대 추정	야간 근무 (성필 퇴직 후)	편의점이 그의 유일한 ‘안전한 식사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 맺음의 공간. 편의점은 독고에게 서울역의 폭력성과 대비되는 ‘안온한 휴식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적 의미를 지님
광 씨 (직원)	보급대 출신, 수다 많고 약간 허당, 점주 아들이 독고를 내쫓으려 고용한 인물	40 대 추정	야간 근무 (독고 퇴직 후)	처음엔 독고 배제 목적이었으나 실제 야간알바로 자리 잡음. 사장님을 인정하고 독고와도 인간적 관계 형성. 편의점은

				그에게 경비일보다 나은 새 삶의 기반
--	--	--	--	----------------------

이처럼 편의점 ALWAYS 는 각 인물이 수행한 실천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비장소성을 벗어나 정동, 돌봄, 신뢰, 회복의 층위가 축적된 장소가 된다. 염 여사의 윤리적 돌봄, 오 여사의 생계 기반, 시현의 미래 지향성, 성필의 책임 있는 노동, 독고의 관계 회복, 곽 씨의 인식 전환이 서로 교차하며 만들어낸 장소성은, ALWAYS 가 더 이상 “일시적 소비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응축된 공간, 곧 “사람 사는 곳”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 1.2.2. 독고: 편의점 ALWAYS 장소성의 중심을 잇는 연결고리

편의점 ALWAYS 의 장소성은 다양한 인물들의 반복적 실천이 축적되면서 형성되지만 그 핵심에는 독고가 자리한다. 그는 노숙과 기억 상실이라는 주변적·취약한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편의점 내부의 정동을 재배열하고 비장소성이 장소성으로 전환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독고는 이 공간이 자신에게 처음 제공한 ‘안전’과 ‘인정’의 경험을 통해 편의점에 정착한다. 염 여사의 제안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왜’ 환대받는지 묻는다. “저한테 왜……잘해주세요?”. 이는 그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관계적 환대의 경험을 갖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가 덧붙인 “나……누군지……모르잖아요.”는 존재론적 불안이자 비장소를 전전하는 주체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염 여사의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라는 응답은 그를 비로소 관계적 맥락 안에 위치시키며 장소성이 생성되는 최초의 기점을 형성한다.

독고의 반복적이고 성실한 실천은 공간의 물리적·정동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그는 “진열대 곳곳을 오가며 오와 열을 맞추고… 청소 도구를 들고 야외 테이블을 닦고 출입문 주변을 비질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돌봄의 실천으로 비장소적 편의점을 유지·관리되는 장소로 변환하는 핵심 요인이다. 장소성은 언제나 반복적 행위의 누적을 통해 형성되는데, 독고의 이 루틴은 바로 그 장소적 안정성의 기반을 만든다. 또한 독고는 고객 및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제 3 장에서 독고는 어르신 고객들을 이끌고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이거랑 이거 하시면 지, 진짜 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라고 적극 안내한다. 이 장면은 기존의 비장소적 소비 공간이 상호작용과 신뢰가 오가는 골목의 ‘동네 편의점’으로 재구성되는 핵심 순간이다. 독고의 존재가 촉발한 이러한

관계적 전환 때문에 할머니들은 “우린 눈이 잘 안 보이니 이런 걸 못 읽어. 아저씨가 알려주니 얼마나 좋아”라고 말하며 편의점을 새롭게 경험한다.

독고는 정서적 힐링의 매개자이기도 하다. 인경과의 대화에서 그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편의점에서 접객을 하며 사람들과 친해진 것 같아요… 친절하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관계적 상호작용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지한다. 즉, 편의점은 독고에게 단순한 일터를 넘어 상처를 돌아보고 회복할 용기와 힘을 얻는 장소가 된다. 이처럼 장소는 개인의 감정적 치유와 상호작용할 때 더 깊은 장소성을 획득한다. 나아가 독고는 직원들 간의 정동의 흐름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선숙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으나 이후 “독고 씨와 마주치면 이해하기 힘든 심정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는 독고의 정동적 존재감이 편의점 내부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는 선숙의 가족 문제 해결에도 개입하며 “아들 갖다줘요”라고 삼각김밥을 건넨다. 이 작은 실천이 선숙과 아들의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며, 편의점은 가족 관계를 재정렬시키는 ‘치유적 장소’ 로까지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독고는 고객의 위협 상황에서도 직원과 공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이에스 사건에서 그는 말없이 에코백을 들고 버티며 시현을 보호한다: “독고 씨의 작은 눈은 거의 감다시피 했지만 그래서 더 서늘해 보였고… 꿈쩍하지 않았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 심리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보호자적 실천’이며 비장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장소성 형성의 중요한 맥락을 이룬다.

요컨대 독고는 ALWAYS 의 장소성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핵심적 노드이다. 그는 돌봄과 관리의 실천,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정동적 · 치유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간 안전성의 강화를 통해 편의점을 단순한 소비 공간에서 관계 · 기억 · 신뢰가 중첩된 ‘인간의 장소’로 전환시킨다. 비장소적 편의점 ALWAYS 가 장소성을 획득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독고의 반복적이고 성실한 실천이 자리하며, 그는 소설이 구축해 나가는 공간적 전환의 상징이자 장소성의 확산을 가능케 하는 정동적 · 사회적 촉매자로 기능한다.

### 1.2.3. 손님들의 경험을 통해 본 비장소에서 장소로의 전환

편의점에서는 원래 손님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나가는 익명적 존재였고 그들 사이에는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연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고의 등장과 함께 손님들과의 상호작용은 점차 관계의 두께를 만들어내며, 편의점은 점진적으로 ‘장소’로 변모한다. 아래에서는 각 손님들의 경험과 독고의 대응을 중심으로 ALWAYS 의 장소성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제 3 장에 등장한 ‘짜몽’ 소년은 편의점이 얼마나 비장소적으로 인식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는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아줌마가 있을 때는 훔치기 쉽다”라고 생각하며, 편의점을 감독이 느슨한 공간 즉 도둑질하기 적합한 무주공산으로 여긴다. 이는 비장소가 가진 ‘익명성과 비관계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독고는 소년을 몰아세우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사과해라”고 말하며 갈등을 처벌이 아닌 설득과 관계 회복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순간 편의점은 더 이상 범죄가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도덕적 교정과 인간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 동네 할머니들(제 3 장) 역시 편의점을 소비 중심의 비장소로 인식하는 전형적 손님들이다. 그들은 행사 가격(1+1, 2+1)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상품 정보를 읽기 어렵고 익명적 공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친절한 응대’를 예상한다. 그러나 독고는 “이거랑 이거 하시면 지, 진짜 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라고 천천히 설명해주며, 고객의 이해를 돕는 돌봄형 상호작용을 실천한다. 이때 편의점은 단순한 유통 공간을 넘어, 정보 접근이 제한된 노인들에게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적 장소로 변모한다.

경만(제 4 장)의 경우, 편의점은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나 잠시 머무르는 ‘혼술 공간’ 즉 전형적인 비장소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의료기기 영업직으로 늘 지쳐 있으며, 참깨라면·참치·참이슬로 구성된 ‘참참참’ 세트를 들고 야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신다. 그러나 독고는 그에게 “위스키요”라며 옥수수 수염차를 건넨 뒤, 건강을 염려하며 “그만 마시라”고 조언한다. 이는 편의점이 경만의 삶 속에서 타인의 정서적 개입과 지지가 발생하는 장소로 변화하는 계기이다. 나아가 독고는 1+1 과자를 추천해 “아이들에게 가져가세요”라고 권하며, 경만이 가족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정서적 회복의 통로를 열어준다. 이 과정을 통해 ALWAYS는 중년 남성의 외로운 음주 공간에서 가족적 의미를 회복하는 장소로 확장된다.

경만의 딸인 쌍둥이 자매(제 4 장)는 편의점 장소성의 변화가 가족 단위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두 소녀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여 편의점에 들러 “로아커 초콜릿 1+1”을 고른다. 이때 독고가 “이건 1+1 이에요, 두 개 가져가면 더 싸요”라고 먼저 설명해주며 선택을 돕는다. 소녀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고 기쁜 표정으로 계산대를 나서는 장면은 편의점이 가족 간 애정이 오가는 매개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독고의 개입 덕분에 소녀들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고 경만은 이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비장소적 편의점이 가족적 감정의 흐름이 생성되는 장소로 바뀌는 핵심 순간이다.

정인경(제 5 장)에게 편의점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는 특별한 장소다. 슬럼프와 생계 악화로 지친 그녀는 밤늦게 편의점을 찾아 “냉동만두, 육포, 하이네켄 2 캔”을 사며 외로움을 달랜다.

독고는 “산해진미 도시락”을 권하고 그녀의 고단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은 그녀가 고립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온기를 느끼는 쉼의 장소가 된다. 동시에 독고와 손님들의 이야기, 편의점 특유의 밤 공기, 사회적 주변인의 삶이 교차하는 이 공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ALWAYS 는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스토리 플레이스” 즉 창작을 자극하는 서사의 장소로 전환된다.

민식(제 6 장)의 경우 편의점은 처음에는 마냥 시시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는 맥주 코너를 보며 “정체불명의 맥주들”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점주인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하다. 그러나 독고가 조심스럽게 “사장님… 많이 아프세요”라고 말하자 민식은 처음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된다. 편의점은 그에게 가족 관계의 재조정이 시작되는 장소가 된다. 비장소적 공간이 가족 서사를 되살리는 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씨(제 7 장)는 장소성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처음에는 독고를 밀어내기 위한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으나 독고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다. 독고가 “가족에게도 손님 대하듯 하세요”라고 조언하자, 광씨는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는 편의점 ALWAYS 가 일상의 재구성과 자기 성찰의 장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표 2. ALWAYS 편의점의 손님들

손님	손님 소개	선택한 것	독고의 대응	근거
제이에스 (JS)	동네에서 악명 높은 진상. 행사 안내판에 트집을 잡고 시현에게 과자를 “던지는” 버릇이 있음. 단골임을 내세워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함.	과자, Esse Change 4mg 담배	독고는 교육 중이라 JS 의 담배 종류를 모르고 “.....안 피우는데.....”, “아, 담배..... 뭐?”라고 말해 JS 의 조롱을 침착하게 넘김.	제 2 장
‘짜몽’ 소년	15 세 전후. 얼굴이 그을리고 옷차림이 지저분함. “똥똥하고 둔해 보이는 아줌마(오 여사)가 있을 때는 흠치기 쉽다”고 생각했던 아이.	삼각김밥 훤침	독고는 소년을 강하게 혼내지 않고 오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하며 갈등을 ‘설득’으로 해결. 행동보다 진심을 앞세움.	제 3 장
동네 할머니들	편의점을 자주 찾는 단골 할머니들. 가격·행사에 민감하고 “이건 싸냐?”, “두 개 사면 더 싸냐?” 등을 반복해서 물어봄.	행사상품 문의(1+1, 2+1)	독고는 행사 스티커를 읽어주고 “이거랑 이거 하시면 지, 진짜 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친절하게 안내함.	제 3 장

경만	의료기기 영업직. 일상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음.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혼술을 위해 편의점을 자주 찾고 이 공간이 일종의 “퇴근 후 피난처” 역할을 함.	참깨라면 + 참치김밥 + 참이슬 (‘참참참’ 세트)	독고는 “위스키요”라며 옥수수 수염차를 챙겨주고 건강을 염려하며 “그만 마시라”고 조언. 또한 1+1 과자를 추천해 두 딸에게 챙겨주도록 유도.	제 4 장
쌍둥이 자매	중학생 정도.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는 조용하고 속 깊은 성격. 아버지에게 선물하려고 편의점을 찾아옴.	로아커 초콜릿 1+1	독고가 먼저 “이건 1+1 이에요, 두 개 가져가면 더 싸요”라고 설명. 첫째는 감사 인사를 하고 두 개를 들고 계산대에 옴.	제 4 장
인경 (여성 작가)	상경한 지 10년. 예전에는 배우였으나 슬럼프로 글을 못 쓰고 생계까지 무너진 상태. 내면적으로 지친 상태로 밤에 홀로 편의점을 찾음.	냉동만두, 육포, 하이네켄 2캔	독고는 “산해진미 도시락”을 추천해 그녀가 따뜻한 음식을 먹도록 하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녀의 창작 의욕에 작은 불씨를 제공함.	제 5 장
민식	염 여사의 아들. 맥주 코너에서 “정체불명의 맥주들”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임.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함.	Pale Ale, Golden Ale	독고는 민식에게 염 여사가 아프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알려주고 가족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	제 6 장
곽씨	보급대 출신. 처음엔 민식이 독고를 쫓아내기 위해 데려온 인물이지만 이후 진짜 야간 알바로 정착함.	맥주 몇 캔	독고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을 돌아보게 됨. 독고는 “가족에게도 손님 대하듯 하라”고 조언해 곽씨 삶의 변화 계기를 만들.	제 7 장

결국 편의점 ALWAYS 는 손님들이 단순히 소비를 하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비장소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감정이 흐르며 삶의 방향이 바뀌는 장소로 변모한다. 이러한 변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독고의 실천이 있었다. 그의 정직함, 섬세한 배려, 공감 능력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공간의 의미 구조를 재편하며 편의점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 즉 진정한 의미의 장소로 변화시켰다.

## 2. 서울의 지명 체계와 서사 구조: 문학적 도시 만들기

### 2.1. 작품 속 지명 목록화(문학지도 기반)

### 2.2. 서울이라는 도시의 다층성: 중심 vs. 주변, 화려함 vs. 그들의 대비

## 참고문헌

Alexander, N., & Cooper, D. (Eds.). (2025). *The Routledge handbook of literary geographies*. Routledge.  
 Augé, M. (1997).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J. Howe, Trans.). Verso.

- Tally, R. T., Jr. (2011). *Geocritical explorations: Space, place, and mapping i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Palgrave Macmillan.
- 김미영. (2023). 「서사적 전환기 시대의 소설과 대중성: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95, 241-268. <https://doi.org/10.16959/jeachy..95.202311.241>
- 김미영. (2024). 「한국과 일본의 힐링 소설 비교 연구: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과 마치다 소노코의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82, 227-262. <https://doi.org/10.35832/kmlc..82.202406.227>
- 김호연. (2021).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 서울역사박물관. (2017). 『청과 · 서계 - 서울역 뒷동네』. 서울역사박물관
- 이명희. (2025). 「한일 편의점 소설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 『일본어교육』, 111, 149-163. <https://doi.org/10.26591/jpedu.2025.111..011>
- 이행선. (2023). 「불편한 ‘말 걸기’와 편의점, 공감의 회복과 확산: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021)」. 『인문과학』, 127, 41-75. <https://doi.org/10.23017/inmun.2023.127.41>
- 정미숙. (2021). 「‘편의점 소설’의 문화 지리학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86, 159-185. <https://doi.org/10.22273/SMLT.86.7>

